“혜욱 선사 수행정신 이어가자”

부산 대운사, 혜욱 선사 열반 21주기 다례재

대운사 2019년부터 봉행해와
취약계층·장학금 지원도 펼쳐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법문
“혜욱 대선사 수행 깊이 느껴”

이도경 부산지사장

평생 수좌로 수행정진의 삶을 살며 모범을 보인 일해당 혜욱 선사의 열반 21주기 추모법석이 마련됐다.

부산 대운사(주지 주석 스님)는 1월 26일 경내 법당에서 ‘일해당 혜욱 선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은해사 한주 정만 스님, 봉암사 주지 진범 스님, 법주사 수정암 한주 성정 스님, 대구 금향사 주지 태현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부회장 정묵 스님을 비롯해 혜욱 스님 상좌인 주석 스님과 문도들이 참석했다.

다례재는 조윤성 재즈피아니스트와 성승욱 바리톤의 추모공연으로 시작해 특별함을 더했으며, 문도를 대표해 성정 스님과 맏상좌 승일 스님이 인사말을 전하면서 은사 혜욱 선사의 삶을 다시 기리는 시간이 이어졌다.

대운사 재가신도들을 대표해 박대건 대운사 다라니회장과 신명환 신도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내빈과 대중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내빈들도 추모사를 통해 혜욱 선사의 열반을 추모했다.

수불 스님은 추모법문에서 “오늘 참 세상의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추구했던 혜욱 선사의 일생이 마음에 깊이 와닿는다”며 “상좌들이 소임을 완수하고 일련의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일생 수행으로 전력을 다하신 스님의 수행이 더욱 깊이 느껴진다”고 격려했다.

주지 주석 스님은 “저는 기도와 수행을 출가자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어떤 불사를 하더라도 그 정신을 잊지 않았다”며 “혜욱 스님은 이 정신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어릴 적 은사스님의 고무신이라도 닦아 드리려면 혜욱 스님은 고무신이 닳고, 비누가 닳고, 수세미가 닳고, 네 손이 닳지 않느냐며 아껴서 기도 수행하는 데 시간을 쓰도록 해라고 당부하셨다. 앞으로도 은사스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주석 스님은 2019년부터 대운사에서 혜욱 선사의 추모다례재를 봉행하며 유훈을 의미 있게 전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펼쳐왔다. 매년 겨울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발원하며 성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학업에 매진하는 불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불사를 위한 특별한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대운사에서 수행 중인 이숙희 불자는 대운사 부설 남천선원 건립 불사금으로 3억원을 전달했다.

이숙희 불자는 “제가 살고 있는 남천동 지역에서 이웃종교 활동을 보고 마음 한편이 아쉬웠다. 청년들과 가족들이 함께 부처님 전에서 기도하며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발원했다”며 “주석 스님의 원력과 문화포교 활동을 보며 제가 생각한 불교문화공간을 꼭 이뤄주실 것이란 믿음이 생겨 이렇게 불사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이 ‘일해당 혜욱 대선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에서 혜욱 스님 영단에 헌화하는 모습.

금강경 1000일 기도 원만회향 기원

행복선원 기도 100일 맞아 자현 스님 초청법회

행복선원(주지 윤광 스님)은 1월 28일 행복선원 법당에서 금강경 1000일 기도 입재 후 100일을 맞아 자현 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자현 스님은 “도심 속에서 포교당을 운영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여법하게 잘 운영하시는 것을 보니 원력이 대단하신 것 같다”며 “주지스님과 여러분의 힘을 합치면 행복선원이 부산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자현 스님은 1000일 기도 원만회향과 지속적인 정진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금강저를 선물했다.

행복선원 주지 윤광 스님은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한걸음에 와주셔서 보석 같은 법문을 해주신 스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인사하며 그림을 선물했다.

행복선원은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기원하는 금강경 1000일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매일 사시예불 때 〈금강경〉을 독송하고 100일마다 작은 회향의식을 가질 예정이다. 200일에는 대광명사 목종 스님의 특별법회가 예정됐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광명사, 어린이·가족 수계법회 봉행

광명유치원 원아 등 120명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 스님)가 1월 27일 지관전에서 ‘제3회 광명유치원 원아 및 가족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수계식은 어린이 불자들이 직접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육법공양으로 시작해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수계법사를 청하는 청사와 개도, 참회, 연비, 귀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어린이 45명을 비롯해 부모 등 총 120명이 수계를 받았다. 전계대화상은 춘광 스님이 맡았으며 갈마아사리는 설혜 스님(해영사 주지), 교수아사리는 원공 스님(거광사 주지)이 담당했다.

춘광 스님은 “계를 지킴으로써 신구의 삼업을 깨끗이 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상구불교연합 학생장학금 지원

28명에 각 30만원 전달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회장 심인택)가 1월 25일 부산제일새마을금고에서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은 학생 28명에게 각 3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원했으며 라면 100박스도 후원했다. 전달식에는 경승실장 성문 스님, 심인택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장, 조병길 구청장, 엄정운 사상경찰서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심인택 회장은 “따뜻한 정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장학사업을 이끌고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경승실장 성문 스님은 “이 자리 만들어주신 신도회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승무북·삼고무북 범어사박물관에 기증

오덕자 부산대 명예교수 전달
“불교의례 더 많이 알려지길”

오덕자 부산대 명예교수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던 승무북과 삼고무북을 금정총림 범어사에 기증했다.

오덕자 명예교수는 1월 25일 범어사에서 주지 정오 스님을 만나 승무북과 삼고무북을 전달했다. 승무북과 삼고무북은 불교의례 가운데 사용되는 악기로, 이번 기증물은 부산대 수업 당시 오 명예교수가 활용하던 것이다. 오 명예교수는 불교의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범어사성보박물관에 기증했다. 이에 범어사성보박물관은 승무북과 삼고무북을 중정에 전시하고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는 장을 마련했다.

오 명예교수는 부산·경남무형문화재위원이며 2022년 ‘제68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연구 부문에서 최우수상, ‘제65회 부산광역시 문화상’, 2023년 2월에는 황조근정 훈장을 수상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2021년 박물관 신축 이후 불화, 불교의례 공예품과 서예, 한국화, 전통 장인의 작품 등 다양한 유물을 기증 받아 전시하고 있다. 앞으로 성보박물관은 기증 유물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기증전과 이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지 정오 스님은 “전통과 문화의 소중함을 아는 민족의 미래는 밝다. 전통문화의 가치에 공감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한편 범어사는 같은 날 천왕문 일원에서 불기2568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시민과 부산의 안전을 기원하는 사천왕재를 봉행했다. 사천왕재에는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과 오덕자 명예교수가 기증서를 들고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수관 맑고향기롭게 부산 회장 자비나눔

설 앞서 2억원 상당 쌀 기부

박수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이 설날을 맞아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박수관 회장은 1월 29일 부산진구청 3층 회의실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박수관 회장은 백미 10kg 총 2700포대(1억원 상당)를 전달했으며, 백미는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가정,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전달된다. 전달식에는 박수관 회장을 비롯해 맑고향기롭게 임원과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이 참석했다.

박수관 회장은 여수에도 1억원 상당의 쌀을 기부했다. 전달식은 1월 31일 여수시청에서 열렸다.

박수관 회장은 “앞으로도 이웃이 소외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한 마음으로 살피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제15기생 학인모집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에서는 장엄한 통범소리인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 과정으로 탁마할 학인 스님을 모집하여 개강하고져 합니다.

-아 래-

✻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 (일반불자 제외)
✻ 개강일 : 2024년 2월 28일 (음력 1월 19일 수요일) 오후 3시
✻ 매주 월·목요일 오후 3시부터 강의합니다. (주2회)
✻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진영포교당)
✻ 과 목 : 초급반 - 예경의식(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등)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 및 천도재 의식, 시식, 사물다루는 법
상급반 -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복청게, 오공양소리 등
✻ 수강료 : 월 10만원 및 교재비 5만원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055)343-2267, 8700 원장 수암 스님 010-5488-7060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자연(기) 치유 힐링쉼터

자연(기)치유 원리는 우주에 늘 가득하여 전지전능하며 영원불멸하는 우주만물의 창조근원인 우주무한생명기운을 환자의 체내로 불어넣어 환자의 생명기운을 북돋움으로써 체내 손상된 체세포들이 지극히 빠른 속도로 정상적 건강세포로 원상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자연(기)치유는 기치유자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 하는 일은 오직 우주 원기운 즉, 우주본성을 환자의 체내에 불어넣기만하고 모든 치유는 우주본성에 의해 저절로 되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내 일반기공사들의 기공치유와 그 원리측면에서 크게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광희기치유는 선천이 아닌, 후천적으로 생긴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자연(기)치유 힐링쉼터에서 새로운 삶을 누려보십시오.

치유대상 관절협착증, 신경통, 녹내장, 산후풍, 불면증, 통풍, 공황장애, 냉한별, 이명, 소화장애, 불안증, 심장질환, 호흡장애, 비염, 각종통증, 난치성 질환 등

NAVER 광희기치료

접수문의 010-8589-2679
충남 논산시 계백로 1012 (터미널 근처 차부약국 옆 2층)